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혁신도시의 중심축인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88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0월 13일 (음력 9월 3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3(土)	14(日)
구름 많음 13/21℃	구름 많음 10/21℃

News

- 신당 경선 막판 표심몰이 ②
- 스페인 교포 2세 축구팀 ③
- 배움이 있는 축제속으로 ④

Entertainment

- 여가수들 사극 납시오~ ⑧
- 연기 변신은 '무죄' ⑨

Wellbeing

- 항암효과 많은 청국장 ⑬

우뚝 서기까지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전남産 천일염은 바다의 보물이죠"

목포대 천일염생명과학硏 우수성 입증

마그네슘 등 미네랄 풍부

"10년내 시장규모 1조원대"

〈함경식 교수〉

전남의 풍요한 갯벌에서, 따가운 햇살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자연소금-천일염이 목포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바닷물을 화학처리해 만들어진 정제염에 밀려 식용이 아닌 공업용 취급을 받아왔지만, 전남산 천일염에는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산 천일염이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곳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천일염 연구기관인 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와 카이스트,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함경식(49) 목포대 교수가 지난 2003년 11월 설립한 이 연구소야말로 국내 천일염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소금 연구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전남산 천일염은 보물(寶物)입니다. 그러나 정제염은 독(毒)이지요."

함 교수는 전남산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를 이처럼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했다.

천일염연구소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타지역이나 수입산 천일염의 대부분은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NaCl) 99% 이상으로, 사실상 염화나트륨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갯벌에서 만들어진 전남산 천일염에는 NaCl이 94% 정도만 함유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함 교수는 "지난 4년여 동안 8명의 연구원이 전력투구한 결과, 전남산 천일염을 먹으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정제염을 먹게 되면 인체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골다공증, 당뇨 등 각종 성인병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알아냈다"며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웰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독 전남산 천일염에 미네랄이 풍부한 이유에 대해 '미생물이 풍부하게 살고 있는 전남 서해안의 갯벌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일염연구소는 최근 서남해안 일대 443곳의 수질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90% 정도의 지역에서 카드뮴과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기준치를 밑도는 것을 확인했다.

함 교수는 "전남산 천일염의 탁월한 기능이 충분히 알려지면 kg당 200원선에 불과한 가격이 앞으로는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천일염의 특성 규명과 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 600억 원대의 천일염 시장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1조 원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체전 막바지 열기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육상 남고부 3000m 장애물 경기 예선에 출전한 건각들이 허들 아래 설치된 물웅덩이를 뛰어넘고 있다. 결승전은 13일 오전 10시 45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할 것"

이용섭 건교장관

건설 공기(工期) 연장과 건설비용 추가를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명해왔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에 대해 건교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12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승용 의원(여수 을)의 질의에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만 완공시기 지연과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일단 현재 계획대로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추진하면서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그로 인한 설계기간의 증가 문제는 설계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11월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필수적이라며 노선 변경을 건의해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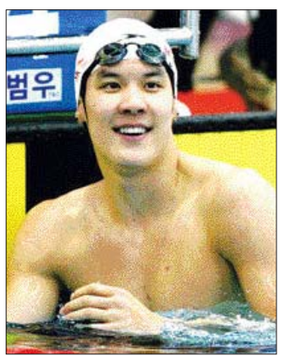
그러나 건교부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가 불거진데다 철도 노선이 17km이 연장됨에 따라 완공시기가 지연되고 7천억원대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통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나타냈었다.

주승용 의원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체전 히어로

역시 박태환, 3관왕 가뿐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서울)이 세 번째 금물살을 갈랐다.

박태환은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계영 400m에서 서울팀 마지막 영자로 3분27초22에 터치패드를 눌러 2위 경기팀(3분30초41)을 누르고 금메달을 보탰다.

박태환은 계영 800m와 자유형 200m에 이어 대회 3관왕으로 10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의 압도적인 기량은 이날도 그대로 발휘됐다.

2위 경기대표보다 0.42초 앞서 출발한 박태환은 경기와의 격차를 3초19 차로 벌려놨다. 박태환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경기의 마지막 주자 김광모는 5~6m나 뒤에 있었다.

박태환은 13일 자유형 100m에 출전, '49초대 진입'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박태환의 100m 개인 최고 기록은 50초02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 전국체전 관련기사 ▶3·18·19면